

# 박호산,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 '오셀로' 출연... "연극 무대 체질"

### 예술의전당 토월정통연극 부활... 오셀로 연기 "의심하며 내면 갈등...경주마 같은 면 비슷해" 무대에서 시작해 27년차... "좋은 작품은 늘 같음"

"1년에 꼭 한 번은 무대에 서요. 공연은 배우를 겸손하게 해주고 원위치로 돌려주는 좋은 예술이죠."

배우 박호산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로 관객들과 만난다. 예술의전당 토월정통연극 시리즈의 부활을 알리는 작품으로, 오는 5월12일 CJ토월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만난 그는 "공연은 주로 연초에 해왔는데, 올해는 일정이 잘 맞아 알아 넘어갔다. 그런데 '오셀로'가 제게 왔고, 낯다 물었다"고 웃었다.

베니스 공화국에 체류하며 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무어인 장군 오셀로가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부하 이아고의 말에 속아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며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다. 광기 어린 추악한 욕망과 질투, 이로 인해 추락하는 고결한 사랑을 그려낸다. 등장인물들의 심리묘사가 뛰어난 이 작품에서 박호산은 주인공 오셀로를 연기한다.

그는 "기존에 했던 '오셀로' 작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의상이나 콘셉트를 모던하게 했고 볼거리가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호산만의 오셀로 캐릭터도 만들어가는 중이다. "미련하게 보이고 싶진 않다"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오셀로"라고 말했다.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땐 오셀로라는 인

물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남의 말을 너무 믿기만 하면,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대본에 적힌 오셀로보다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아고의 말을) 의심하면서 오셀로라는 캐릭터가 단단해지고, 이아고도 더 속이려고 하니 가 싸움을 하며 더 탄탄해지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오셀로 내면의 갈등에 더 집중했다고 밝혔다. "전쟁터만 누비다가 사랑을 처음 해본 그에게 질투가 새로운 감정이고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작품을 공부할수록 열등감은 아니라고 봤죠.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도 자기 탓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모습이 저와 비슷하다"며 "저도 좋아하는 일에 그렇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인 오셀로의 동력은 복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인공이지만 분량은 이아고보다 많지 않다. 그는 "이아고의 절반밖에 안 되는 분량으로 압도하는 힘이 필요하다"며 "무대에 등장했을 때 관객에게 딱 오셀로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호산은 18년 전인 2005년에도 예술의전당 정통연극 '아가멤논'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오디션을 거쳐 주역으로 발탁된 그는 지

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대학로에서 주연을 하긴 했지만, 토월극장 무대의 주인공까지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경쟁한 배우들 속에 타이틀로 낙점됐죠. 당시 제 이름으로 토월극장 객석을 다 채우기 어렵지 않겠냐는 걱정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일주일 정도 단체 연습을 한 뒤에 최종 결정됐죠. 기분이 묘했어요. 당시 연극 형식도 관객들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 등 파격적이었어요."

데뷔 27년차인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연극'에 있다고 했다. 2017년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시작으로 '나의 아저씨' '펜트하우스'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렸지만, 1996년부터 20여년간 줄곧 대학로를 주 무대로 연극과 뮤지컬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대학로에서 오랜 세월 활동하며 많은 역할을 해온 게 밑천이 됐다"고 했다. 현재도 극단 맨씨어터에 소속돼 있으며 전미도·이석준·이창훈 등이 함께 활동했다.

"공연은 제작진과 배우가 한 팀으로 생각을 공유하며 계속 다듬어 나가잖아요. 다른 매체를 해도 공연만큼 먹어야 작품 전체를 보는 힘이 갈라지죠. 연극을 1년에 하나씩 꼭 하는 이유예요. 관객과 직접 만나 즉각적인 반응을 느끼고, 공연 기간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지요. 사실 공간의 좁은 맛이 있는 소극장을 좋아하는데, 대극장은 큰 무대만큼 관객의 힘이 커서 그 에너지에 설레요."

장르나 배역을 가리지 않고 다작을 해온 그의 원동력은 명료하다. 바로 '재미'다. 꼭 하고 싶은 작품을 연출을 찾아다니며 얻어내기도 했다. 뮤지컬 '빨래', 연극 '변태' 등이 그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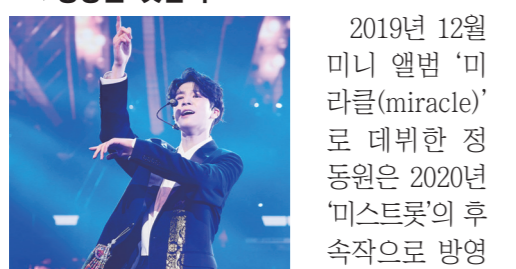


"다른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해요. 이런 생각은 그 배우가 너무나 잘해서 감명받았을 때 저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인 거죠. 배우들끼리 최고의 칭찬은 '나도 하고 싶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선수'들이 좋아하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연출·작가·제작자·배우 등 공연계 동료들을 만족시킨다면 일반 관객도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작품에 대한 갈증은 늘 있어요."

## 임영웅·이찬원·정동원, 트로트가수 아닙니다

국내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성을 재조명 받은 가수들이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시작은 트로트였지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가수들의 인기곡을 '2세대' 인턴가수들이 분석했다. 선정 기준은 가수별 직캠 조회수가 가장 높은 곡이다.

### ◆정동원 '벚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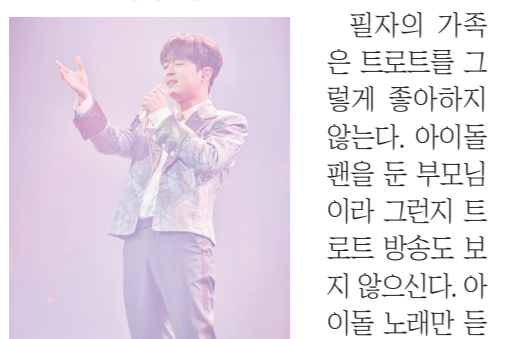
2019년 12월 미니 앨범 '미라클(miracle)'로 데뷔한 정동원은 2020년 '미스트롯'의 후속작으로 방영된 '미스트롯' 최연소 결승 진출자다. 14살이래도 불구하고 트로트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가장 실력, 그리고 능숙한 팬 서비스를 통해 준비된 트로트 인재로 이름을 알렸다.

'미스트롯' 중영 이후에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오며 사랑 받아오고 있는 그는 지난해 12월, 두 번째 미니 앨범 '사내(MAN)'을 발매했다. 해당 앨범에는 팬들에게 항상 남자, 혹은 오빠이고 싶은 정동원의 마음이 담겼다.

'사내'의 타이틀곡 '벚놀이'는 연인에게 벚놀이 하듯이 유유자적 평생을 함께 하자는 내용으로, 정동원이 "큰 틀로 봤을 때 민요가 들어간 댄스곡이지만, 아이돌적인 느낌, 트로트적인 느낌, 발라드와 국악 창법도 들어가 있어 모든 것이 통합된 느낌의 곡"이라 직접 소개한 바 있다.

정동원의 말마따나 '벚놀이'는 우리나라 전통 민요 '벚놀이'를 샘플링한 곡이다. 여기에 현대적인 신선함을 가미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의 성공적인 조화를 입증했다.

### ◆'찬또배기' 이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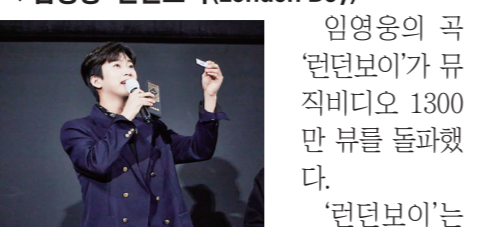
필자의 가족은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돌 팬을 둔 부모님이라 그런지 트로트 방송도 보지 않아요. 아이돌 노래만 들

는 2세대인 필자는 트로트라면, 장윤정 '어머나', 박현빈 '콘드레만드레' 정말 유명한 곡들만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알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 출신 가수가 있다. '찬또배기' 이찬원이다.

JTBC 예능 '토크왕 25시'에서 동그랑돌 서글서글한데 말의 전달력이 좋고 야무진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찬원이라고 하더라. 상당히 호감이었다. 필자의 어머니는 "사위는 저런 사람으로 데려와라"고 할 정도였다.

이찬원은 '미스트롯 1'에서 미(美)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음악, 예능 분야에서 종합무선 중이다. 지난 2월 첫 정규앨범 '원(ONE)'을 발매했다. 한터차트 기준 초동 판매량 57만 장을 달성, 역대 솔로 가수 초동 '8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트로트가 더 이상 마이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된다.

### ◆임영웅 '런던보이(London Boy)'



임영웅의 곡 '런던보이'가 뮤직비디오 1300만 뷰를 돌파했다. '런던보이'는 임영웅의 첫 자작곡으로, 지난 2022년 15일 발매된 더블 싱글에 '폴라로이드(Polaroid)'와 함께 수록됐다.

'런던보이'는 모던 록 장르의 곡이다.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 라인에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전한다. 뮤비 속 임영웅은 안경으로 댄디한 모습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스타일링과 힙한 헤어스타일로 매력력을 드러냈다.

임영웅은 런던보이를 통해 정규 1집을 발매한 이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담아냈다고 전했다. 또한 멜론 스포트라이트 채널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지내던 기억을 회상하며 한국에서 즉흥적으로 써 내려간 곡이다"고 밝혔다.

런던보이는 첫 자작곡이라는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 트로트 가수로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곡에 도전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며,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곡이 사랑을 주제로 표현한 곡이지만 그 대상이 연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누군가를 떠올릴 때 다양한 세대에서도 공감하며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혀 3분의 1 잘라내"...정미애, 설암 극복 후 '눈물 무대'



KBS 2TV 예능 '불후의 명곡'이 김연자의 특집으로 꾸며진다. 15일 오후 방송된 '불후의 명곡' 602회에서는 정미애의 '남이여로' 무대

### KBS 2TV '불후의 명곡' 김연자 특집

에 오른 정미애는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무대에서 토크석으로 내려온 정미애를 만난 김연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김연자는 "정미애가 원래 노래를 잘한다"며 "옛날에 만났었는데 '수은등'을 부른다고 해서 조금 조언을 했더니 그 다음 만나니 저보다 노래를 더 잘하더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간 정미애는 설암 3기를 관장받고 극복한 과정을 전해 감동을 줬다. 입 안에 염증을 달고 살던 정미애는 이상 징조를 느꼈고, 큰 병원에서 설암을 진단 받았다. 그는 당시 심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하늘이 무너졌다"며 "처음에는 가수를 못하겠다고 포기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정미애는 "혀의 3분의 1을 잘라냈다. 8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됐다"고 털어놓았다. MC 신동엽은 "혀를 3분의 1을 잘라냈으면 노래할 때 발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라고 놀랐다.

정미애는 "맛다. 처음엔 가수를 포기했었다. 원래 노래를 오랫동안 해 와서 그런지 수술 후에도 노래를 포기 못했더라. 재활을 오래 했다. 끊임 없이 반복하고 하다 보니 안 되던 발음도 되더라"고 회상하며 눈물을 쏟았다.

정미애는 설암 극복 후 '불후의 명곡'을 통해 정식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만나 기쁘고 행복하며 미소를 보내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김연자는 "큰 병을 앓았는데 이겨냈다. 대단하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존경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정미애는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2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중 그는 돌연 2021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 이유가 설암이었던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 신카이 '스즈메의 문단속', 448만명 돌파...국내 日 영화 최고 흥행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이 올해 신드롬을 일으킨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제치고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이 됐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일본 애니메이션계 새로운 거장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연출한 '스즈메의 문단속'은 전일까지 국내 누적 관객수는 448만2045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8일 개봉 이후 38일째 세운 숫자다. 그간 올해 개봉작 중 흥행 1위였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이날 0시 기준 총 누적 관객 수 446만9649명)를 넘어섰다. 특히 국내 개봉 역대 일본 영화 흥행 톱3에 등재되는 기염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전작 '너의 이름은.'(881만 명), '날씨의 아이'(74만 명)를 합쳐 국내 누적 관객 수 총 9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첫 일본 영화 감독이 됐다. 앞서 '스즈메의 문단속'은 국내 개봉 이후 3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

### 올해 신드롬 일으킨 '더 퍼스트 슬램덩크' 기록 깨



며 흥행 신드롬을 예고했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우연히 재난을 부르는 문을 열게 된 소녀 '스즈메'가 일본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닫아가는 이야기다. 지난 2011년 3월11일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유구가 가득한데, 재난극복 서사보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인물들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 방점을 찍고 공감대

를 썼다. 지난달 초 내한했던 신카이 감독은 한국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27~30일 다시 내한한다.

'스즈메의 문단속' OST 주인공인 일본 밴드 '레드윙프스(RADWIMPS)'는 5년 만인 오는 7월21일 오후 7시30분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 홀에서 국내 팬들과 다시 만난다.